

# 세종대왕이 한 권의 책을 1,100번 읽은 까닭은?

조주희 | 대광고등학교 교사

책도 읽으면 단 맛이 난다. 그 맛을 문학반 동운이가 제대로 보았다. 겨울방학 중에만 읽은 책이 12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고2 올라가기 전에 30권을 다 채우겠다. 천천히 읽으라 했더니 “어떤 기자분은 하루에 책 한 권씩 읽으신다고 하시는데요?” 단단히 책에 욕심이 붙은 모양이다.

물론 동운이는 매우 희귀한(?) 학생이다. 대부분은 책과 담을 쌓는다. 교과서가 유일하게 읽은 도서목록인 아이들도 상당수다. 그러니 책이 점점 낡아진다. 두려워진다. 교과서 낭독조차 버거워진다. “그그그, 그. 래. 서. 우우우, 우. 리. 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난독難讀수준이다. 겨우 읽고는 가쁜 숨을 헉헉 내신다. 책 읽기가 마라톤보다 더 어렵다. 그게 요새 아이들의 실정이다.



책에 빠진 사람들에게겐 공통점이 있다!

《옛 사람 59인의 공부 산책》은 책에 빠진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 중 으뜸은 단연 세종대왕이다. 하루 동안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식사를 할 때도 양 옆에 책을 펼쳐놓았다. 뿐인가. 한번 읽기 시작한 책은 백 번을 읽어줘야 했다. 심지어 <구소수간>이란 책은 1,100번이나 읽었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 했더니 “왜 그랬대요?” 하고 못 들을 걸 들었다는 듯이 오만상을 찌푸린다.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현재와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말 재밌게도 옛 사람과 요새 고등학생의 읽기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의 왕의 독서법이 요새 학생과 닮았다면

믿겠는가? 참말이다. 정조의 독서법이 그러하다. 좋은 구절은 청색 먹으로 비점을 치고, 그 가운데서도 더욱 핵심적인 구절에는 붉은 먹으로 원점을 쳤다.(22쪽) 쉽게 말하면 “밑줄 짝, 별표 세 개”인 셈이다. 조선 사람들은 가부좌에 조용히 책장만 넘기는 줄만 알았는데 새로운 발견이다.

책 읽는 태도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한 몸부림도 볼 수 있다. 몸이 건강치 못한 퇴계 이황은 간단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체조법을 기록해 두었다.(55쪽) 조식은 책 읽을 때 줄음이 오면 칼을 어루만졌다.(62쪽) 시험 전 줄음을 쫓는 현재 고등학생과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 최근 도원미디어에서는 《옛 사람 59인의 공부 산책》을 발췌하여 청소년 수준에 맞게 보완한 책 《너희는 공부가 즐겁지 않나?》를 출간했다.

마음가짐 또한 매우 유사하다. 모든 옛 선인들이 모범적으로 책을 읽은 건 결코 아닙니다.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으로 유명한 기대승은 책 읽기가 귀찮았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이달부터 8월 말까지는 더위에 지쳐 마냥 누워서 책상을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수 년 동안의 게으르고 방탕함이 고질이 되어 학업은 진취되지 못하고 나이만 많아진다고 여겨 매우 걱정을 하였다.’ (75쪽)

그럼에도 옛사람은 다르다. 글 읽는 품이 여유가 있다. 한번을 읽어 이해되지 않으면 두 번을 읽고 그도 안 되면 세 번, 네 번을 읽는다는 생각이 있다. 다이어스트로 된 현대 소설집으로 문학을 한번에 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성적을 올린다는 속도전으로 변한 지금, 새삼 그 여유가 부럽다. 그래서 연암 박지원의 독서를 그의 처남 지계공 芝溪公이 평한 옛 글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연암은 책 읽는 것이 몹시 느려서 내가 서너 장을 보는 동안 겨우 한 장을 본다. 게다가 기억하고 외는 재주는 나보다 조금 손색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위 아래로 헤아려 따지거나 문장의 장단을 건주어 헤아리는 데는 마치 인정사정없는 옥관이 옥사를 판결할 때 사한 것이라도 모두 따져 심문하는 듯하였다. 비로소 공이 책을 늦게 읽는 것이 끝까지 연구하여 모두 이해하기 때문이었음을 알았다.’ (152쪽)

동운이에게 책을 왜 읽느냐고 물었다. 간결한 답변이 왔다. “재밌어서요. 또 지금의 저로는 부족하니깐 만족하지 못하니깐 책을 통해 저를 메우려고요.” 책을 통해 배운다는 자세는 오백 년 전 세종대왕도 똑같다. “글 읽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14쪽) 그래서 세종은 한 권의 책을 1,100번 읽었다. 그 맛이 변하지 않은 한,

천 년이 지나도 책 읽는 사람에겐 닮은 점이 있을 게다.



‘그때 그때 다른’ 책 맛!

실험을 하나 해봤다. 내용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언제 읽어야 재밌는가? 6살 조카 민호와 고2 문학반 승용이, 그리고 내가 실험에 참가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으면 된다. 단, 아직 능숙하게 책을 읽지 못하는 6살 민호는 내가 대신 쉬운 단어로 구연을 했다.

우선, 민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고 들었다. 다 읽고 나서도 책을 달라고 발을 동동 굴렀다. 가장 재밌는 게 뭐냐는 말에 “주스 마시고 쑹쑹 크는 거!” 소리를 지른다. 공작부인의 아이가 돼지가 된다는 엉뚱한 이야기에 도싹 싹 빠져 듣는다. 다음은 승용이. 평상시에도 글 읽는 실력이 만만찮은 아이라 “가벼운 상상의 나래 위에 무거운 표현과 생각이 들어갔네요.” 나름대로 느낌을 분석하며 읽는다. 그러면서 역시 ‘흥미롭다’ 쪽에 한 표를 던진다. “앨리스가 계속 어떻게 반응할지 끝까지 읽게 되네요.”

이제 승용이가 묻는다. “선생님은 언제 읽으셨나요?” 답변하기 곤란하다. 10살이 훌쩍 넘어 다시 읽은 앨리스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이야기도 느슨하게 느껴지고 인물도 병적인이다. 무엇보다 앨리스에 대한 느낌이 달랐다. 예전엔 앨리스를 어린아이로만 알았는데, 지금의 앨리스는 매우 전방졌다. 책이 달라진 게 아니라, 왜 새삼 그렇게 다가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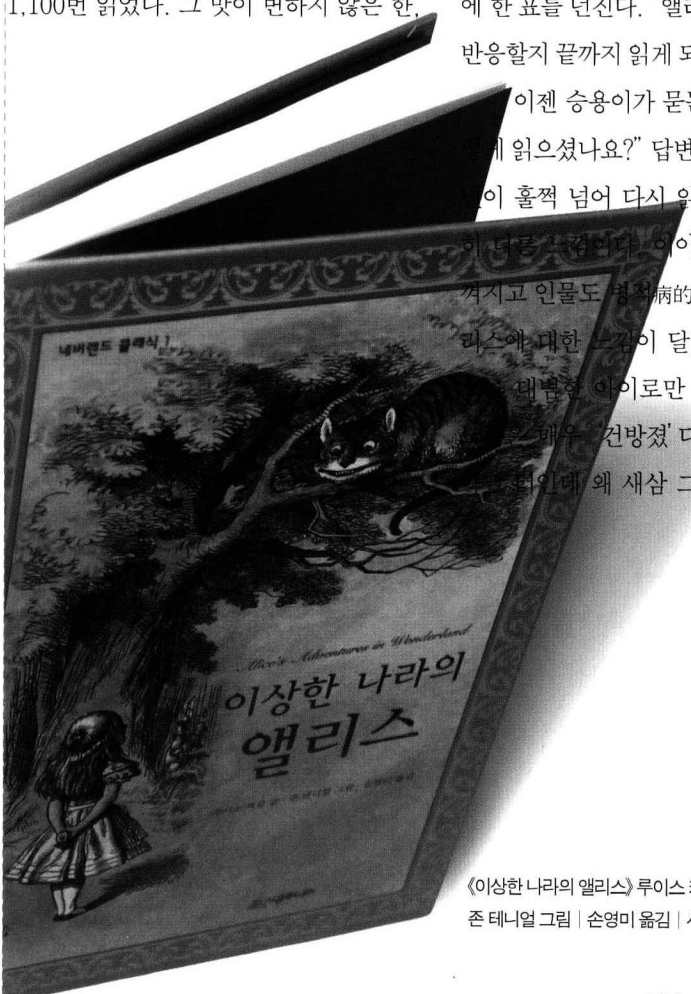
책 내용보단 현실에 비추어 읽는 건 왜일까. 동화 끝에만 잠깐 나오는 앨리스의 언니도 같은 심정을 느낀 듯하다.

앨리스의 언니는 눈을 감고 앉아서 자신이 이상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반쯤은 믿었다. 하지만 눈만 뜨면 이 모든 것이 단조로운 현실로 바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83쪽)

저자 루이스 캐럴은 실제 이웃 소녀 ‘앨리스’라는 아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지어냈다. 어린 꼬마의 눈높이에 맞춰 쓴 글이니 재미있게 읽어주는 게 제일일 게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심리학적 의미로 혹은 무의식 등의 의미로 해석한다. 어떤 이는 마약 복용 후 환상을 그려낸 것이라는 설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쯤 되면 동화가 아니라 난해한 텍스트가 된다. 저자 또한 자신의 글이 이렇게 해석되리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민호와 승용이가 참가한 실험은 어릴수록 제 맛을, 어른이 될수록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결론이 됐다. 책에도 그때 그때 다른 맛이 있다는 소리다.

3월이다. 새 학기다. 아이들마다 새 소망을 펼친다. 승용이도 올해 백일장에서 상을 타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제 때 알맞은 소망이다. 보기 좋다. 이것처럼 책도 제철이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청소년기에 읽어야 할 책은 아주 많다. 맛을 보지 못하면 제 맛을 볼 수가 없다. 책도 사람도 때에 맞을 때가 잘 익는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옛 말은 지금까지 유효한가 보다. **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음 | 존 테니얼 그림 | 손영미 옮김 | 시공주니어 | 184쪽 | 값 7,500원

**이 글을 쓴 조주희 선생님은**

현재 대광고등학교 국어교사이며 문학반을 담당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 CBS 다큐멘터리 작가, 리포터, 〈여성동아〉 자유기고가로 활동한 바 있다.